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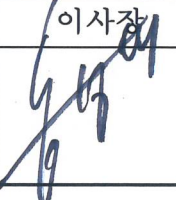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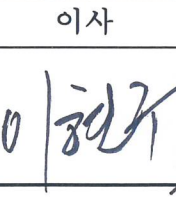

# 학교법인 상산학원

## 제279회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인	재적이사	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회의소집통지일 : 2018년 8월 1일
2. 회의일시 : 2018년 8월 9일 11:00~13:20
3. 회의장소 : 모산빌딩 8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2)
4. 이사정수 : 8명
5. 재적이사 : 8명
6. 참 석 자 : 이사장 홍성대, 이사 김성기, 이현구, 박삼옥, 홍상욱, 전창후(6명)
7. 결 석 자 : 이사 신철순, 김성길(2명)
8. 안 건
  - (1) 안건 제1호 : 지역인재선발에 대한 심의(안)
  - (2) 안건 제2호 : 교원 휴직 제청(안)
9. 회의내용

이사장 홍성대 :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법인실장의 성원 보고와 함께 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있는 다음 제278회 이사회 회의록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 없이 의결하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미 1주일 전에 각 임원님께 회의 서류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안건 제1호 '지역인재선발에 대한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278회 이사회의에서 '2018. 6. 28.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공고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26일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17개 시·도교

간	이사장	이사	이사
서			
명			

육청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로부터 지역인재선발과 관련하여 ‘2019학년도 전국 고입전형방식 요약(변경)’과 ‘2019학년도 전국 고입전형일정 요약(변경)’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장이신 박삼옥 이사께서 설명해주시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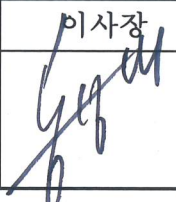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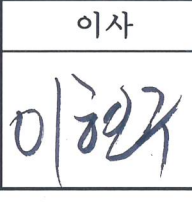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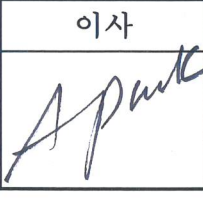
이 사 박삼옥 :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중 ‘자사고 지원자에게 이중지원을 금지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고함에 따라 전북 교육청은 평준화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사고와 평준화 학군 내 일반고를 동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고등학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공고하였습니다. 다만, 자사고를 1지망학교로 지원한다면 평준화지역(전주, 군산, 익산)의 학군 내 일반고를 2지망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형방식과 전형일정을 자세히 설명하다)

이 사 이현구 : 자사고가 전기학교일 때에 비해서는 자사고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기본계획에 비해서는 불이익이 덜해 보입니다.

이 사 김성기 :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1지망 지원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전북인재 할당을 채우지 못하거나, 채운다 하더라도 입학생들의 능력차가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사장 홍성대 : 내가 38년전 상산을 설립할 때, 그 터전을 서울근교에 자리 잡을 수도 있었으나 굳이 전주에 자리 잡은 것은 기왕이면 고향에 내려가 후학들을 길러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능력차가 있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아니라면 전북지역 인재를 일정률 이상 선발하여 길러보고 싶습니다.

이 사 전창후 : 종전의 상산인재영역(지역인재·글로벌태권도) 25% 내외로 선발하던 것을 2019학년도에는 전북지역인재를 20% 선발하고, 글로벌태권도 선발비율이나 기타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학교의장이 정하여 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간 서 명	이사장	이사	이사
			

이 사 홍상욱 : 전창후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삼옥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홍성대 : 홍상욱 이사의 동의와 박삼옥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이사 일동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1호 안건은 ‘종전의 상산인재영역 (지역인재·글로벌태권도) 25% 내외로 선발하던 것을 지역인재는 20%로 선발하되, 글로벌태권도 선발비율을 비롯한 기타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행한다.’로 심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2호 안건 ‘교원 휴직 제청(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인 물리(김혜영)교사가 휴직(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성기 : 육아휴직 할 경우 수업 대체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사 박삼옥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8월 6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아 현재 서류전형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사 홍상욱 : 원안대로 받아드리기로 동의합니다.

이 사 박삼옥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홍성대 : 홍상욱 이사의 동의와 박삼옥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2호 안건 ‘교원 휴직 제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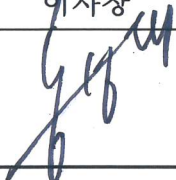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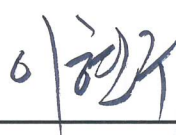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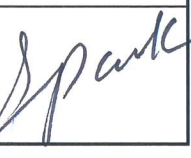
그럼 회의록 간서명을 위한 대표 3인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성기 : 홍성대 이사장과 이현구 이사, 박삼옥 이사를 추천합니다.

이 사 전창후 : 김성기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 홍상욱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홍성대 : 전창후 이사의 동의와 홍상욱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위 3인이 대표로 간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79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하다)

간 서 명	이사장	이사	이사
			

위 사실을 확인함.

2018년 8월 9일

이사장 홍성대  
이 사 이현구  
이 사 홍상욱

이 사 김성기  
이 사 박삼옥  
이 사 전창후